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끝

눈 떠보니 끝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 다짐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 다짐했던 시작이 눈 한번 깜빡하니 끝이 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설렘과 두려움에서 시작한 출발은 어느새 희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출발은 항상 작은 점과 같은 희망의 빛에서 출발하기에 마지막에 대한 희망이 커지기를 바라며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희망과 다른 불안함, 두려움에 과정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려 다짐하기에 돌아보는 시간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지 않는다면, 희망과 두려움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마지막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이자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오늘 대축일은 처음을 돌아보며 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호하고 모순투성이처럼 보일 수 있는 세상을 희망과 생명의 장소로 재발견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의 날입니다.

마지막을 거대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희망의 빛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독서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마지막 피로서 우리가 새로이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배척할 것인지를 다시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다가오는 그 선택의 순간 영광을 누리는 길 위에 다시금 마음을 다해 출발할 것인지 후회와 부끄러움의 길 위에 남아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오늘 그 선택의 답을 주님께 넘기려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물음에 답은 네 입에서 나오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왕이셨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희망의 빛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새로운 길 위에서 넘어지고 모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는 그 희망의 빛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끝도 희망의 빛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끝을 맞이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까?

또다시 다가올 끝이 “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끝!!”이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끝’이 아닌 주님과 함께 기분 좋은 ‘끝’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슬기 안토니오 신부 | 군중 전역



제 1 독 서 다니 7,13-14
화 답 송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제 2 독 서 묵시 1,5ㄱ-8
복 음 요한 18,33ㄴ-37

주일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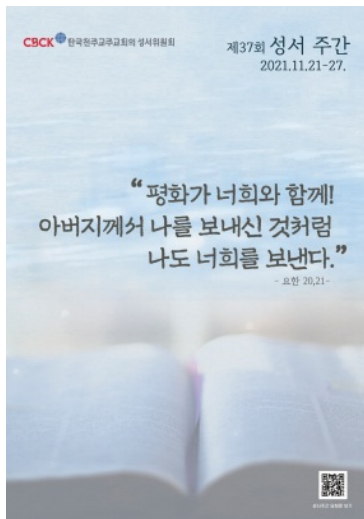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중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라는 평화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21,26)라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요한 20,22-23 참조).

평화는 정의와 함께 성경에서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창조의 뜻이 모든 존재에게 온전히 회복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닮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고,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 관계가 평화입니다. 민족, 재산, 명예, 직위 등 그 어떤 조건에서도 모두가 하느님을 닮은 동등한 형제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과 폭력과 같은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누리던 평화가 파괴되었습니다. 서로의 알몸을 보여 주기가 부끄러워 몸을 가리고, 하느님에게서도 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창세 3,5) 되리라는 뱀의 유혹은 스스로 모든 것을 지배하여 하느님 역할을 하려는 유혹입니다. 곧 힘을 소유하고 싶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 우위에 서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에는 죽음을 이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힘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어 본래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 속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먼저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처하는 세상의 여러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숙되지 않은 자유의 주장과 힘 있는 이들이 백신을 먼저 독점하려는 움직임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나라 안에서 인종 차별의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함께 사는 사회, 그리고 그러한 지구촌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단순히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식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깨우침과 의식들이 차별을 없애고 서로의 간격을 좁히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평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당장 우리 주변에 관심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평화의 사도로 파견되었습니다. 평화는 모든 존재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서로 간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곧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다시 그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 없이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생태계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자인 우리 인간을 통하여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대 자연을 향하여 우리의 이 거룩한 임무를 다하며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이 실천할 때입니다.

2021년 1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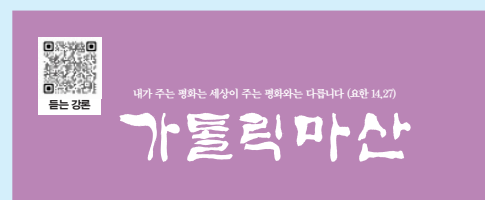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비오 주교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참조 바랍니다.

강론(음성지원) 안내

‘가톨릭마산(교구보)’ 11월 28일자(대림 제1주일)부터 QR코드로 강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대림 제1주일

We are the champion(우리는 승리자)

김현주 스텔라 수필가/ 가톨릭 문인회

버킷 리스트의 '사회복지학 공부하기'를 실천하게 되어서 3월부터 만학도가 되었다. 다시 누리고 싶던 캠퍼스의 낭만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수업을 듣고 제출해야 할 산더미 같은 과제물과 함께 사라졌다.

<다문화가족의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당신의 역할을 서술하시오>란 과제를 받자마자 H가 떠올랐다. 농촌지역에서도 어려운 가정형편, 할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아버지, 사진만 남기고 떠난 엄마. H는 경제적 빈곤,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등 우리가 꼽는 위험요인들을 모두 가진 다문화학생이었다. 이름을 두고도 '동남아'라고 부르며 차별하는 시선들로 해서 늘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고, 말을 붙여도 대답 없이 희미하게 웃기만 했다. 돌아보니 H의 목소리를 들어 본 기억이 없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가정, 언어, 소통교육의 삼중고를 겪어내느라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학생의 3배라는 수치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H도 곧 학교를 그만두었다. 부모가 유럽 사람이면 글로벌이고 동남아 사람이면 다문화라는 식의 차별을 받고 결국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는가 싶었다. 일본인 어머니를 둔 학생은 제2외국어를 잘하겠다고 또래들이 부러워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H에겐 어머니의 나라가 어디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텐데, 결국은 나도 H에게 방관자로 남고 말았다. 다문화라고 선을 긋는 우리가 오히려 위험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아이들이 쓰는 크레파스와 물감에 '살색'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부터 차별이어서 '연주황색'이라고 표현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혈통주의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혼혈, 국제결혼, 다문화라는 말을 새삼스럽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케냐 출신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출신이고 미식축구 선수로 유명한 하인스 워드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달라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도전하고 더 넓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전쟁과 폭정을 피해서 온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진천에 들어왔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나라 이름에 붙은 '스탄'은 '살기 좋은 땅' '자유의 땅'을 뜻하는 접미사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이주노동자, 그리고 많은 H들이 여기에서, 한국-스탄(한국-살기 좋은 땅)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전은 낯설고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우리가 자랑하는 비빔밥처럼, 우리와 함께 어울리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다. 보헤미안 쿼의 노래, 인생이라는 도전에서 우리 모두 함께 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이 세상의 승리자이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자이다. 그들의 눈물이 상처로 남지 않고 진주가 되어서 이 한국-스탄에서 빛이 났으면 한다.



빛의 열매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그녀가 미국에 체류하게 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고향 에티오피아에서는 지난 1년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반군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군사력을 키우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동안, 국민들은 끔찍한 지옥을 견뎌내고 있다. 민간인, 정부군, 반군 사망자까지 합칠 경우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희생자 집계마저 어렵다. 피난민 신세로 전락한 이들은 250만 명이 넘고, 수년째 이어진 기근으로 식량 공급도 끊겼다. 광폭해진 군인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백 명을 강간하고 남성들은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신문에서 읽었던 이 참혹한 이야기들은 그녀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의 이야기였다.

그녀를 알게 된 것은 한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였다. 이리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인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청을 받았고, 마침 살고 있는 지역이 가까워 어렵지 않게 연락이 닿았지만, 내가 딱히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선한 얼굴의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남동생이 바로 일주일 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마음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마스크 위로 번지는 눈물을 훔치는 그녀에게 나는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몰라 가만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살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자신의 등을 떠밀어 망명을 보낸 채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매일 같이 확인해야 하는 그 고통을 나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정교회 신자인 그녀는 마음을 기댈 공동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이민자가 많은 워싱턴 D.C.에서 정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다들 정치적인 입장으로 분열되어 갈 때마다 상처를 받은 해 차라리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주말, 나는 기도할 곳을 찾는 그녀를 데리고 내가 아는 성당을 찾았다. 함께 초를 밝히고 무릎을 꿇으며,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남동생의 영혼을 위해, 또 에티오피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화를 시도하도록 빌어 달라고 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전쟁과 폭력과 증오의 세상에서 목숨을 잃은 그녀의 남동생과 또 모든 애처로운 영혼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기를, 또 기근으로 갈라진 땅처럼 메마르고 분열된 세상에 하느님의 평화와 치유가 깃들기를 기도했다. 오후를 함께 보내고 각자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녀는 그 선한 얼굴이 더 선해 보이는 웃음을 띠며 또 만날 날을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그녀의 선한 웃음을 오래 생각했다. 그 웃음은, 폭력과 증오의 세상에서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또,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인들에게 전하는 권고에서 선포했던 내용을 떠올렸다. 그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했던 구절이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에페 5,8-9) 에페소서의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 사이에 벌어지는 ‘대심판’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 선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은총은 심판, 징벌, 보상 등의 법적 범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실현된다는 바오로 사도의 신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의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폭력과 증오의 세상에 산다고 하여 폭력과 증오를 입지 않으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5,11) 않는다.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5,13) 된다는 믿음, 결국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빛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 내 에티오피아인 친구가 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웃음으로 보여 주었듯이 말이다.

바오로 사도가 그토록 애정과 열정을 담아 선교했던 에페소 교회는 그가 체포되어 순교한 직후, 그의 제자 디모테오가 맡았다가 그마저도 순교한 후 사도 요한이 맡아 돌보게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부탁한 말을 따라 평생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던 사도가 노구의 마리아를 모시고 정착했던 곳이 에페소 교회다. 사도 요한은 에페소인들을 향해, 당신들의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으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허위를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어 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던 것”(요한의 묵시록 2,2-3)을 잘 알고 있다고 칭찬하지만, 당신들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다. 오랜 이단 시비와 진리 검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분별하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하느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은 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던 에페소 공동체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미움과 배제와 분열을 하느님의 정의로 오해하여, 삶을 통해 사랑이신 하느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고 있었다.

사도 요한이 에페소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것은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요한의 첫째 편지 4,6-7) 에페소 교회 뿐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새겨 들어야 할 당부다. 곧 대림이 시작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남은 나날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 즉 사랑을 내 마음으로부터 일깨워 보는 건 어떨까. 그러기 위해 전쟁과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수많은 목숨들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 차별과 증오로 인해 사회의 위험한 변두리로 내쳐진 목숨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



※ ‘지평과 초월’은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조민아 마리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 립

견진성사

일시: 11월 24일(수) 19:30

장소: 반송성당

집전: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교구/본당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폐막미사

일시: 11월 27일(토) 11: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12월 11일(토) 13:00~12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통독범위: 요한복음/ 참가비: 6만 원

대상: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자로
선착순 20명 마감

준비물: 성경, 마스크, 텀블러, 세면도구,
필기구, 시계

신청: 12월 5일(주일)까지

문의: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11월 기도모임

일시: 11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교구 군중후원회 미사

일시: 11월 24일(수) 10:00

장소: 용잠성당

교구 전례꽃이회 정기총회

일시: 11월 25일(목) 13:30

장소: 교구청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
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
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문의: 055·296·9126/ 297·3288

E-mail: magapok@hanmail.net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12월 4일(토) 14:00

겨울진학캠프: 2022년 1월 8일(토)~9일(주일)

대상: 현 초6, 중1/ 문의: 054·338·0530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주식회사 바른 23492387/23492388/23492389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도장공사

주식회사 바른(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전화 : 010-5055-0076

■ 제주 1일 성지순례 49,000원
제주도 성지 6곳 / 4명이상 출발

■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12. 3.(금)~5.(주일)/ 12. 6.(월)~9.(목)
12. 10.(금)~12.(주일)/ 12. 13.(월)~15.(수)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비누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Anna Organ

창원시 진례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문의: 010 6409 480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일 름

장승포본당 제21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장봉근(마티아)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서정홍(요한보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필순(아가다)
 총무·기획분과위원장: 송기순(시로)
 재경분과위원장: 박종수(요한)
 전례분과위원장: 정옥심(세실리아)
 복음화분과위원장: 김미정(엘리사벳)
 교육분과위원장: 권성우(분도)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상원(토마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방영자(젬마)
 구역분과위원장: 박선옥(요세파)
 시설분과위원장: 이기형(베드로)
 가정사목분과위원장: ME 대표 부부(당연직)
 홍보분과위원장: 최경용(안셀모)

교구 평협과 함께하는 2021년 대림 시기 본당 대형 모바일 복음쓰기

2021년 대림 시기를 맞아 곧 오실 아기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 복음쓰기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모바일 복음쓰기를 전개합니다.

기간: 11월 28일(주일)~12월 24일(금)까지
 방법: 반드시 모바일 앱 [가톨릭] 설치 후 앱에서 참여가능

시상: 상장 및 상금
 본당 1등- 100만 원,
 본당 2등- 70만 원,
 본당 3등- 50만 원,
 개인- 소정의 상품(10등까지)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교구 법원은 신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가톨릭농민회 추수감사미사



교구 소식



※ 잠시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교구 가톨릭농민회는 지난 10월 30일 추수감사미사를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함안 우리농본부에서 봉헌하였다. 이번 추수감사미사는 각 분회 공동체 대표만 초대하여 조촐하게 진행하였으며, 미사 제대 앞에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햇살과 비를 통해 정성스럽게 마련된 농산물을 차려놓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교구장 주교는 “농민은 이 땅을 돌보는 사제이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공동의 집 지구를 가꾸는 사제직의 임무를 한결같이 이어왔다.”라며 격려했다.

군 제대 복학 신학생 피정



2022년 군 제대 복학 예정 신학생들을 위한 피정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피정은 성소국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의 강의와 성체조배로 진행되었으며, 성소국장은 “각자의 삶 안에서 존재하실 하느님을 피정하는 동안 찾아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기에 성인들의 깊은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전하였다. 신학생들은 피정을 통해 각자의 삶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님은 크신 분-최은영의 『밝은 밤』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최은영의 『밝은 밤』은 “엄마나 할머니, 아주 옛날에 이 땅에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작가의 오랜 바람에서 나온 작품이다. 백 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증조모-할머니-엄마-나의 4대로 이어지는 아픈 이야기이다.

서른두 살 주인공 지연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며,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희령’이라는 동해안 소도시로 떠난다. 희령 천문대의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보고 이사를 결심한 것이다. 이사 간 아파트에서 그녀는 우연히도 20년 넘게 만나지 못하던 외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을 계기로 지연은 1930년대 증조할머니 삶에서 시작해 외할머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다. 증조모는 위안부로 끌려갈 뻔했고, 할머니는 남편이 중혼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가 버림받았고,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

이 작품은 이처럼 파란만장한 여성들의 가족사 이야기이다. 그 속에서 증조모 삼천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새비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그녀는 백정의 딸로 태어나 멸시받던 증조모를 따뜻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그녀의 남편인 새비 아저씨도 누구보다 따뜻한 심성을 지닌 사람이다. 작품 속의 대부분 남성들이 가부장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인 데 비해 이런 새비 아저씨의 모습은 참 이채롭다. 꼭 죄로 더러운 사람들 속에 홀로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새비 아저씨가 가족의 부양을 위해 히로시마에 갔다가 원폭 피해를 당한다.

히로시마의 아비규환의 모습을 목격한 새비 아저씨는 독실하게 믿던 천주님을 원망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둔 천주님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을 때 종부성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아내인 새비 아주머니는 그의 뜻에 따라 종부성사 없이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그 심경을 가장 친한 친구인 증조모 삼천에게 편지로 보낸다.

너 따위 간나가 내 아들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구. 애 어마이 어깨를 꼭 잡고 소리쳤지. 어마이, 기 말 취소하시랴요, 희자 아바이가 천국에 못 간다면 세상 갈 수 있는 사람 어데 있시까. 천주님은 크신 분이랴 희자 아바이 뜻을 품어주실 분이랴요. 입조심하시랴요.

희자 아바이가 진짜 천주님을 버렸다든, 화도 안 내고 사람들이 하란 대루 종부성사도 받았을 기야. 천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든 기냥 미적지근하니 미사 가서 앉아 있다 왔을 기야. 그런 고집부리지도 않았을 기야.

우리 희자 아바이... 저쪽으로 가서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하는 천주님 얼굴 보갔구나... 그런 생각이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들었어. 내 고저 이런 생각을 하구 희자 아바이 보내고 있어.

종부성사를 거부한 남편이 다른 사람 생각처럼 결코 천주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종부성사를 받지 않아도 그 신앙의 깊이를 천주님은 다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진실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천주님은 크신 분이랴 겉치레 형식보다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아신다는 것이다. 남편인 희자 아버지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고 가장 간절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크신 천주님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초기 신앙의 모습이면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